

국적 달라도 무대 열정은 하나



“원, 투, 쓰리, 포!”

지난 17일 오후 찾은 동구 금남로3가 광주국제교류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는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 이들은 광주지역 외국인 아마추어 공연단체 ‘광주퍼포먼스프로젝트’(GPP) 단원들로 100명 가까이 활동하고 있다. 피부색과 국적은 각기 다르지만 무대를 향한 열정은 마찬가지다.

GPP는 석 달 전부터 다음 달 20일 열리는 공연 ‘볼룸 블리즈’(Ballroom Blitz) 준비를 하고 있다.

GPP는 희곡 작가인 박범조씨와 그의 친구 트레비스 메이저가 뜻을 모아 지난 2010년 결성했다. 친목모임에 그치지 않고 워크숍·이론수업을 통해 연극·뮤지컬·합창 등 여러 장르의 공연예술과 무대 미술·분장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다.

GPP는 2011년 연극 ‘라퐁 아질의 피카소’를 무대에 올리며 첫 공연을 펼쳤다. 2015년에는 첫번째 뮤지컬 ‘지난 5년’을 선보였다.

또 같은 해부터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2년에 한 번씩 상연하고 있다. ‘한 여름 밤의 꿈’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에는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올해 하반기에는 ‘겨울 이야기’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사랑한 단원들은 2014년 부산에서 외국인에 의해 열린 셰익스피어 희곡 축제에 참가했고 이듬해 울산에서 열린 ‘빅데이 사우스’ 축제에서 직접 공연하기도 했다.

셰익스피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작품은 단원들이 직접 극본을 쓴다. 2012년부터 GPP는 10분짜리 창작 단편연극을 선보이는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17명이 출품한 18개의 작품 중에서는 레이첼 세인트 존(38)의 ‘No Jane to Comfort Me’가 최고 극본상의 영예를 안았다.



외국인 공연단체 광주퍼포먼스프로젝트(GPP)는 다음 달 20일 자선 공연 ‘볼룸 블리즈’를 연다.

©Ben Robins

10년째 활동중인 외국인 단체 ‘광주퍼포먼스프로젝트’ 회원 100명...셰익스피어 연극·뮤지컬·합창 등 무대 자선 공연 준비 한창... 내달 20일 황금동 57파티타운

GPP의 창립 때부터 활동해 온 레이첼은 극작을 하며 연기 지도도 맡고 있다. 그는 올해 GPP 회장으로 뽑힌 5대 회장 데이브 세인트 존(47)의 아내이다.

“목표를 가져 광주에서 살아온 지 12년 됐어요. 그동안 남편 데이브를 만났고 중학교에 다니는 사랑스러운 아들도 생겼어요. 미국에서 살던 일곱살 때부터 연기를 배웠고 ‘셰익스피어 컴퍼니’에 다니며 연극인의 꿈을 키웠지만 여러 사정으로 난관이 많았죠. 한국에서 뜻 맞는 동료들과 공연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GPP에는 최근 새식구가 생겼다. 지난 1월 이들에 걸쳐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연 오디션을 통해 35명을 맞이했다. 신입



단원들은 각자 연출·극작·연기 등 역할을 나눠 갖게 됐다. GPP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현재 한국인 20여 명도 참여해 공연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박재연 조선대 교수 피아노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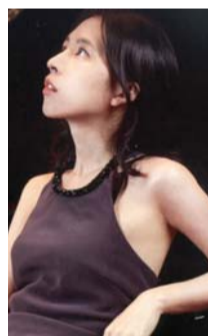
27일 광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박재연 조선대 교수가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모차르트의 저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연은 모차르트의 ‘반짝반짝 작은 별 변주곡’으로 문을 연다. 또 바흐 풍자가로 유명한 피터 슈뢰리의 ‘P.D.Q. 바흐’

곡 중 하나로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를 편곡한 음악을 들려준다. 슈뢰리는 자신의 작품을 ‘가짜 바르크’(PseuDo baroque) 음악이라 이름 짓고 바흐가 살았던 바로크 시기 음악의 특징인 대위법과 푸가기법을 활용해 작곡했다.

이어 모차르트의 ‘레퀴엠’(진혼곡)을 리스트가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작품을 만난다. 마지막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



를 연 뒤 예술의 전당, 금호아트홀(서울) 등에서 연주를 펼쳤고 우크라이나 키예프 방송 교향악단, 강남심포니, 광주시향 등과 협연했다. 현재 조선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피아노 듀오협회 및 한국 피아노 교수법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강혜진·박소영(바이올린), 비올라(전혜성), 첼로(이준화)가 협연한다. 27일 공연에 앞서 23일에는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02-525-616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봄

미디어아트 위 ‘꽃길을 걷다’

김창겸전...4월 9일까지 미디어 338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오른다. 온 천지가 꽃 세상이다. 전시장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으로 형상화된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하다.

파팍한 삶 속에서 삶의 휴식을 전해줄 미디어아트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이 올해 미디어 338 첫 기획전시로 김창겸의 ‘꽃길을 걷다’전을 마련했다. 전시는 오는 4월 9일까지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2층 미디어 338 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던 김창겸 미디어아티스트다. 조각가는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이탈리아 가라라 아카데미에서 조소를 공부했다.

눈에 띄는 작품은 ‘water shadow’ 시

리즈. 물 표면에 꽃잎이 흩날리고 나비가 날며 이색적인 그림자를 드리운다. 작가는 “고달픈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라면서 “봄이 오는 길목에서 나만의 꽃길을 어디에 있고 어떻게 걸어갈지 매순간 질문을 던졌다”고 설명한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 시간은 평일, 토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일·월요일은 휴무.

한편 미디어338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에 마련된 북측 전시 공간이다. 1층은 미디어아트 전시는 물론 실험적인 작품 설치 가능한 융·복합 전시 공간이며 2층은 이아나 작가가 기증한 VR체험 작품 ‘흔들하는 지구’가 설치돼 있다. 문의 062-670-7492. /백성현 기자 skypark@



소치 허련 작

매화·봄 풍경 낙찰받을까

A-옥션 21일부터

미술품 경매회사 ㈜A-옥션(대표이사 서보훈)이 매화와 춘경(春景) 그림을 주제로 탐매(探梅) 특별 경매를 진행한다.

이번 경매에는 소치 허련과 회원 이한철, 몽인 정학교의 매화 작품과 월전 장우성의 ‘야매도(夜梅圖)’, 윤보 김기창의 ‘홍매도’ 등 매화를 주제로 한 그림과 함께 복사꽃이나 봄 풍경을 그린 소장 변관식의 ‘춘경’, 석연 양기훈의 ‘매화서숙도’ 등이 출품된다.

근현대미술에서는 김병중의 ‘춘홍’과 천칠봉의 ‘비원’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고

암 이응노, 의재 허백련, 산정 서세옥, 이당 김은호, 낭곡 최석환, 오승우, 오승운, 안영일, 권순철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경매는 21일 시작하며 1부 고미술은 27일 오후 2시부터, 2부 근현대미술·서예·조각·판화는 28일 오후 2시부터 마감한다. 작품 전시는 21일부터 27일 까지 전주 A-옥션 전시장에서 열린다. 현장 방문하면 작품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작품 구매와 컬렉팅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다.

응찰은 A-옥션에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며, 응찰 및 낙찰은 홈페이지(www.a-auction.co.kr)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의 02-725-885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